

국제학술대회



해외 한인사회 遠心力과 求心力의 통합적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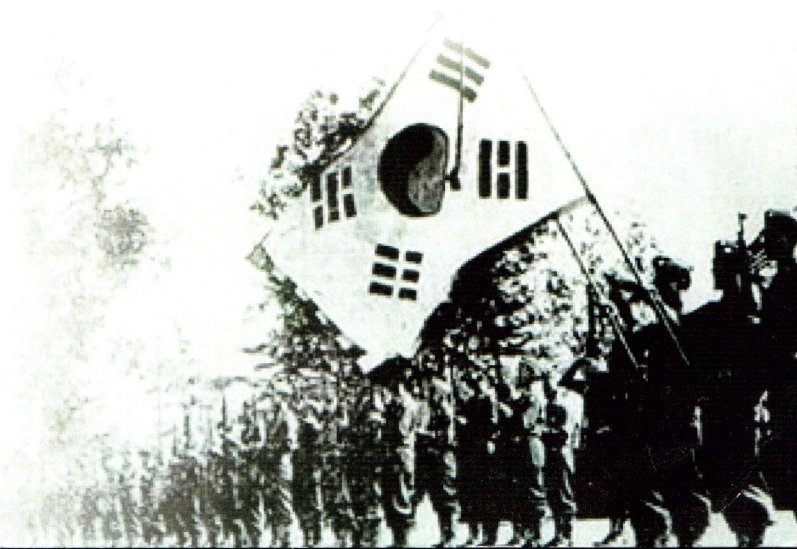
- 포용의 한국사 인식 확장을 위하여

일시 2011년 9월 23일(금) 10:00-18:30

장소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지하 1층)

주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후원 국가보훈처



소련에 거주했던 고려인과 민족해방운동과의 상호관계 (1920-1930)

송잔나 (모스크바 역사연구소)

I. 서론

- a) 소련과 한국의 사회정치 상황
- b) 국제 정세(소련, 한국, 일본, 중국)

II. 코민테른 -한인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 a) 소련(전소연방공산당과 코민테른)에서 한인민족해방운동의 전개 문제
- b) 소련의 국제적 상황 악화
- c) 스탈린의 테러와 한인민족해방운동

III. 결론

I. 서론

a) 소련과 한국의 사회정치 상황

1920-1930년대는 세계사에 있어서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가장 복잡하고 비극적인 시기다. 제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내전, 간섭에 대응한 전쟁, 전후 폐허,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시작 등 이 모든 것이 러시아의 운명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한 식민지 종속, 독립을 위한 3·1운동, 일본 식민지 명예의 강탈, 국내외에서의 민족해방투쟁, 한인의 불가피한 이주 등이 이어졌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러시아 극동에서 한인들의 항일무장투쟁을 일소하는 것이 일본이 소비에트 러시아에 간섭한 주요 목적 중의 하나였다(1918-1923).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본은 무력, 지원이나 보상 혹은 직접적인 한인 매수와 같은 경제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이용했다.

일본인들은 한러관계의 '허점'을 잘 알고서, 반(反) 러시아적 성격의 다양한 도발을 꾀치르면서 가능한 모든 특별한 방법들을 이용했다. 당시 일본의 공식 집단은 범아시아주의, 즉 아시아 민족들의 혈연관계에 관해 적극적으로 선전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이론을 활발히 이용했다. 이 이론은 한인과 러시아인 간의 민족적 차이를 격화시키고 그들이 소원해지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¹⁾

1) См.: НамС.Г.Указ.соч.С.90-91.

한인 주민 중 특정한 계층을 붕괴시키는데 맞추어져 있었던, 그리고 한인 공동체의 통일성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 것을 고려했던 정책 역시 일본의 간섭 목적이었다.

한국에서의 민족해방운동은 가혹하게 박해를 받았으며, 일본인들에 의해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 그리고 한국 자체 내에서도 진압되었다. 조국 해방의 전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강압과 박해는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숨어들게 하거나, 민족해방운동의 중심적 지도부가 인근 나라(중국, 소연방)의 지원과 원조를 찾아 그 나라들로 이전하게 만들었다.

b) 국제 정세(소련, 한국, 일본, 중국)

1920-1930년대 한국 민족해방운동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족 전체의 운명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던 인근 이웃국가들, 즉 소연방,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아야만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다.

청년 소비에트 국가가 형성되고 난 후 유럽러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극동에서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국제관계를 수립하려는 목적에서 소연방과 일본의 대표들 사이에는 1925년 1월 20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과 일본 간에 상호관계의 근본 원칙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²⁾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 협약에 따라 양 체약국은 자신의 영토에 존재하면서 체약 상대국에게 적대적인 모든 조직을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5조). 이 규정으로 소비에트는 한국과 다른 극동지역 국가(중국)들의 영토가 그곳에 정주한 백군 이주민들에 의해 이용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규정은 일본에 적대적이면서 소연방 영토에서 능동적으로 민족해방운동을 수행하던 한인 조직에 속한 이들에 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에트 지도부는 ‘전소한인협회’ 정례회의의 모스크바 개최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에 더하여 ‘한인 연맹’은 혹독한 통제를 받았으며, 1926년에는 마침내 활동이 금지되었다.

모스크바는 더 나아가 도쿄에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약의 목적은 일본군과 소비에트군대 사이의 무력충돌을 피하는 것이었다. 일본은 내전이 진행되고 있던 중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굳히기로 계획했다는 것을 소비에트 지도부도 알고 있었다.

소연방의 지도자들은 세계혁명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전면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 일본인들은 만주에 있는 장작림(張作霖)원수를 수뇌로 한 중국 부대에게 원조를 제공했다.

소비에트 첩보부와 코민테른 조직은 지하공작을 위해 한인들을 한국과 중국으로 파

2) См.: Москва - Токио. Политика и дипломатия Кремля. 1921 - 1931 / Сб. док. 2 кн. М., 2007.

견했다. 요원 수의 문제는 없었다. 소연방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한인은 10월 혁명을 지지했다. 공산주의자와 청년공산당원들은 일본 식민주의자들과 현지 '지주 및 자본가들'로부터 자기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 투쟁하길 원했다.

한국 문제에 대한 소비에트 국가의 관심은 카라한(П.М. Карахан)이 북경회의의 실현 방법에 관하여 치체린(Г.В. Чичерин)에게 발송한 1925년 2월 15일자 서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울주재 총영사관이 소연방에게 막대한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서울에 영사관을 개설함으로써 소비에트 국가가 존재하던 전체 기간 동안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³⁾

다른 한편으로 전쟁 이전까지 소연방의 대일관계사에서는 추문으로 유명한 '다나카의 비망록(1927)'이 적지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다나카는 일본의 장군이면서 총리였고 외무성과 식민성의 대신이었다. 이 문서는 일본의 사회정치적 삶과 경제의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그리고 극동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 및 후일의 태평양 전쟁의 발화로 이어진 일본 대외정책의 팽창주의적 열망의 분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 문서는 중국과 몽고 이후 소연방의 점령을 지향하는 일본 정부의 야만적 계획을 폭로했다.

II. 코민테른 -한인민족해방운동의 지도자

a) 소련(전소연방공산당과 코민테른)에서 한인민족해방운동의 전개 문제

1920년대의 한국 내 민족해방운동에 상당한 원조를 제공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에서 광범위한 국제공산주의 선전을 수행하던 코민테른이었다. 공산주의 이념의 확산과 선동 그리고 현지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 수립이 지하 운동가들의 과제였다. 이런 목적에서 많은 한인들이 동방노력자공산대학(КУТВ)의 과정을 이수했으며, 이후 그들은 비합법적으로 한국과 중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한국 해방을 위한 소연방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져 갔는데, 이것이 한인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적 좌절로 이어졌다. 이런 좌절의 근저에는 사회생활이 아닌 정치적 모순이 존재했다.

b) 소련의 국제적 상황 악화

소연방의 국제적 상황의 급격한 악화는 1927년 극동에서 발생한 한 사건과 함께 시작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중국주재 소비에

3) Мисага - Токио... Кн. 1 С. 337 - 342. (АИРФ. Ф. 3. Оп. 66. Д. 1001, л. 54 - 61)

트 대사관을 급습했다. 국제사회에서 형성되고 있던 소연방에게 비관적인 상황에 대한 스탈린(И. Сталин)의 답변은 한인을 포함하는 외국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이었다.

1931년 일본군의 만주침공 그리고 소련의 한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소비에트 정권의 이러저러한 사건들은 극동의 한인 주민 사이에 발생한 일련의 탄압을 위한 동기가 되었다. 한인들은 일본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받기 시작했다. 1931-1932년 1,521명의 한인들이 체포되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한국 또는 만주와의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던 평화로운 주민들이었다. 체포된 이들 중의 약 50%는 총살형이라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c) 스탈린의 테러와 한국 민족해방운동

그러나 스탈린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1920-1930년대 코민테른 활동에 있어서 소연방의 국제적 이익과 국가적 이익의 상호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해외의 공산당은 볼셰비키 이데올로기와 작전 통제에서 볼셰비키 러시아공산당 - 볼셰비키 전소비에트 공산당에 예속되었다.⁴⁾

1926년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서울에서 6월 데모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보였다. 이런 행동의 결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이들만 160명이 넘었는데, 그들은 재차 선출된 콤포몰 조직과 고려공산당 중앙위원회(И К ККП)의 실질적인 지휘부 전체였다. 이런 행위 이후 코민테른 고려과에는 모든 과원들의 '숙청'이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당에서 제명되고 탄압을 받았다.

1928년 고려공산당이 해체된 후 한인 공산주의자들은 '당 없는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코민테른의 한인들 대부분에게 활동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실제로도 당원증이 없었다.⁵⁾

스탈린은 자신의 수하들에게 소연방과의 전쟁 국면에 위치하고 있었던 국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그런 목적에서 탄압은 소비에트 권력에 대응한 반혁명적 행위를 수행했을 리 없는 사람들의 전체 집단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것에 맞추어졌다. '인민의 적' 색출 메커니즘은 모든 나라에 있는 반혁명 조직의 광범위한 지부망을 색출하는데도 이용되었다. 한인들 내에서의 이런 관계는 극동으로부터 대체로 유럽, 즉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적'을 찾으면, '분열적인 반당파적 활동을 위한 열성분자 요원들이' 반드시 극동에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4) См.: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1918 - 1941 гг. М., 2007.

5) ВКП(б), Коминтерн и Корея. С. 613.

통상적인 업무를 마치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귀국한 한인 공산당원들은 삼엄한 조사를 받았으며, 종종 근거도 없이 배신의 죄목으로 비난받았으며 당으로부터 제명되었다. 1937-1938년 실제로 모든 항일운동가들이 '일본인 첩자'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스탈린의 단일권력이 확립된 후 해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관계는 이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대폭 변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이방인', 즉 스파이, 파괴분자 그리고 반정부 인사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소연방에 체류 중인 외국계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모국과 개인적인 관계들을 부인해야만 했다. 소연방과 볼셰비키 전소비에트공산당이 이제부터 영원히 그들의 모국이자 정당이 되었다.

III. 결론

위에 인용된 사실들은 한인들에 대해 소연방과 일본 양국이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있었음을 증명해준다. 양국은 한인을 상대로 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한민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 주민들은 양국 대외정책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담보'가 되었다.

공산주의자들과 공산청년회원들이 소연방에서 처음으로 탄압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모든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들이 제거되었으며, 한국 해방에 관한 사고는 탄압의 핏물 속에 침몰되었다.

1937년 극동으로부터의 한인 강제 추방을 위한 정치적 행위는 1년 만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이 행위는 일본의 공격성으로부터 소연방을 보호하겠다는 범위 내에서 계획되었으며 이행되었다. 모든 한인을 '일본에 봉사한 스파이 행위 죄목'으로 비난함으로써, 스탈린은 일본군의 침입으로부터 소연방의 영토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1937년의 강제 추방 이후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방에서 자신의 모국으로부터 고립된 한인들은 귀환의 희망을 잃어버렸다. 독립되고 해방된 한국에 관한 한인들의 기대와 꿈은 그들의 가슴 속에만 남게 되었다. 모국에 대한 향수와 한국에 있는 자신의 동포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하는 무력감으로부터의 절망은 소연방에 있는 한인들의 자아 인식과 민족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차 례

소련에 거주했던 고려인과 민족해방운동과의 상호관계 (1920 - 1930)	송잔나	3
1920년대 중반 연해주 한인사회의 정치지형과 민족해방운동의 변화	윤상원	39
재일조선인, 생활 속의 독립운동	최진석	55
재일조선인사회에 대한 일제의 감시체제 - 헌병대의 역할과 성격을 중심으로 -	이승희	65
연안파의 독립운동과 운명에 대한 고찰	김광희	79
재만한인독립운동가들의 대중인식과 대중단체조직운동	최병도	95
필립 제이슨: 한국 민족주의자들 사이의 한 미국인	Leighanne Yuh	111